

광산구, 걷고 싶은 '명품 30리길' 만든다

'생태·문화·예술 탐방로' 조성 사업 본격화... 11개 부서 협업 송산근린공원~동곡 두물머리 12km 자연환경·문화유산 연결

광주 광산구가 전례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걷고 싶은 명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민선 8기 핵심 현안인 '생태·문화·예술 탐방로 30리길'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문화·관광이 꽃피는 도시 구현을 민선 8기 역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송산근린공원부터 동곡동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30리(약 12km)를 걷기 좋고, 걷고 싶은 '산소 스페이스'로 조성한다.

사업성공을 위해 광산구의 보물섬 '송산공원 하중도'와 국내 첫 국가습지 황룡강 장곡습지, 황룡강과 어등산이 만나는 두물머리 등 전례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운상원, 임방울, 박용철 등 역사적 인물, 그리고 광산농악과 고려인마을 등 지역 대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황룡강 물줄기를 따라 이러한 자원을 엮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30리길 조성 사업의 핵심이다.

참여하는 부서만 광산구 11개 과, 17개 팀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광산구의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앞서 지난 7월 말 30리길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답사도 진행했다. 간부 공무원들과 송산근린공원부터 서봉진수지구, 장곡교, 동곡동 두물머리 등 주요 거점을 차례로 돌며 시민이용 현황 등을 살피고,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 지속적인 부서별 현장 답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간 거점별 활성화 전략, 예산 확보 등을 챙겼다.

광산구는 30리길 조성 협업 추진단을 구성해 30리길 연결, 장곡습지 보전, 황룡강 개선, 관광자원화, 활용-마케팅 등 5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인공암벽장, 출렁다리, 레포츠 공간, 바닥분수, 생태전망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관광스토리텔링 등 부서별 중점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실행계획 보고회에서도 세부 사업의 타당성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박병규 구청장도 최근 민행배, 이용빈 지역 국회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30리길 조성을 비롯한 광주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광산구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예산확보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회 확보 노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생태·문화·예술 탐방로 30리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과 현장 답사를 하고 있다.

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가 영산강 황룡강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Y벨트 익사이팅' 프로젝트와 30리길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박병규 청장은 "현장 답사를 통해 30리길이 광주시민은 물론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꼭 찾고 싶

어 하는 명소가 될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특화 전략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광산의 풍부한 생태 자원과 역사,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명품 30리를 만들어 시민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광산구, 31일까지 순차 지급 2만9366명에 총 87억 원

광주 광산구는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피해 보상금을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366명으로, 보상금은 총 87억 원이다.

계좌이체 지급은 계좌오류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난 17~18일 완료했고,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지급을 신청한 주민은 사전에 지정한 날에 맞춰 광산구청 환경생태과로 방문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후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선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2023년 보상금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 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주택 중개보수 지원 3억 이하 거래시 최대 30만 원

광주 광산구는 "주거이전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월 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960-8242)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농업의 미래 한눈에' 스마트 농업 전시회

25~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농업의 미래를 이끌 AI·식물공장·드론·ICT솔루션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전문 전시회 'Green & Agritech Asia 2022'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농촌진흥청, (재)스마트연구개발사업단, 코트라(KOTRA),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 드론 등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제품이 전시되며,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 세미나 등 농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개 정부기관(식물부, 과기정통부, 농촌진흥청)이 투자해 운영하는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단장 조성인)은 시설원예와 축산분야의 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미래 농업의 혁신기술을 선보인다.

또 국내 스마트팜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속한 (사)한국스마트산업협회의 회원사 12개사가 참가하며, 대표 기업인 (주)유비엔은 시설원예하우스의 환경 조절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무선 스마트



트팜 솔루션을 제시한다. (주)다함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토마토, 딸기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시스템을, (주)교린은 탄소중립형 첨단 나노 기술 기반 스마트난방시스템을 공개한다.

특히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산업센터는 '드론 공동관'을 구성하고,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 농업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농업이 생소한 일반 관람객에게도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일인 25일에는 미국, 일본, 포르투갈 등 글로벌 스마트농업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제 컨퍼런스 'AWC(AI World Congress: AI X Agriculture)'도 동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THE AI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을 안전 우리가...마음놓고 동네 한바퀴"

월곡2동 주민자치회·월곡지구대 합동 방범 순찰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광주 광산구 월곡2동이 주민총회에서 방범순찰을 실시하겠다고 의결한 후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방범 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광산구 월곡2동에 따르면 지난 19일 월곡2동 주민자치회와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가 참여한 합동 방범 순찰을 진행했다.

지난해 월곡2동 주민총회에서 마을 의제로 '마음놓고 놀자 동네한바퀴'를 정하고, 방범 순찰을 의결한 바 있다. '마음놓고 놀자 동네한바퀴'라는 의제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마을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서 정기적인 방범 활동을 하는 게 핵심이다.

월곡2동 주민자치회(회장 노한복)는 이번 방범 활동을 위해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 월곡2동 통장단 등과 마을의 안전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장인 월곡2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직접 나서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방범의 날로 정하고 관내 치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순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